

# 世界的으로 봄 일으킨

## 大型 油田 開發

提供 編輯 室

世界的으로 油田開發 봄이 일고 있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또는 各地의 海底에서 「알트러 C 級」의 有望油田이 續續 發見되고 있다. 北美 등의 既存油田은 앞이 뻥한 것이 드러나고, 期待하는 中東은 政情이 不穩하여 石油消費國은 不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相當히 展望이 밝아졌다. 아무튼 이 봄은 世界的 油田地圖를 全的으로 變貌시킬 程度의 趨勢이다.

### 피이크 넘어선 美本土

昨年 世界的 產油量은 日產 4千40萬바렐, 消費量은 1日 3千9百20萬바렐로서 僅少하지만 供給이 需要를 上廻했다. 產油量 第1位는 中東으로서 日產 1千2百6萬바렐, 第2位가 美國의 日產 9百15萬바렐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도 世界產出量의 半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美國에 있어서는 오크라호마, 칸사스의 各油田產油量은 이미 피이크를 넘어서 減退傾向에 있고 캘리포니아, 루이지아나, 텍사스의 各油田도 70年代 後半에는 앞이 막힐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또한 中東은 如前히 政治的인 不安定狀態이어서 이에 全面的으로 依存함은 爲險한 것이다.

### 大規模의 探查競爭

이 때문에 各國의 石油業界는 新油田의 開發에 着手한 것이다. 그리하여 北美的 알래스카, 日本附近의 東支那海 海底, 아프리카의 西海岸, 北海, 아도리아海, 오스트렐리아의 海岸地帶, 蘇聯의 시베리아 등에서 大規模의 石油探查競爭이 始作했다.

이 探查에서 發見된 有望油田中, 가장 注目되는 것이 알래스카의 노스슬로프油田이다. 지난번에 採掘權이 競買된 地域은 總面積 45萬8百58 에이커(1에이커는 約 4千60平方미터). 2年前에는

1에이커에 15弗에도 買客이 없었던 土地였는데 落札值의 總額이 10億弗에 가까운 9億22萬5百90弗에 達했다. 1百79區中 最高的 落札值는 게티오일과 아메라다·헤스의 그룹이 落札한 第57區의 7千2百萬弗이었다.

### 美國의 救世油田으로 登場

이 競賣風景은 아주 深刻하였다. 우선 應札者는 事前에 入札值를 스파이當하지 않도록 二中封筒에 넣어 안에는 렌트겐으로 盜撮 當하는 것을 防止키 위해 알미늄으로 싸고, 호텔에서는 隣室까지 豫約하고, 또 갯트機內에 宿泊하기까지 하는 狀態였다. 또, 入札當日까지 各社의 現地 駐在員은 1週間の 超過勤務에 對해서 1千弗의 手當을 支拂받았다고 한다. 駐在員이 入札條件을 알려달라고 接觸하는 他社의 스퀘우트에 말려드는 것을 防止하는 對策費인 것이다. 그리고 競賣場에서는 空前的 落札值가 發表될 때마다 「하느님 이시여!」라든가 「부라보」 등 嘆聲과 歡聲이 나오는 騷動이 있었다고 한다.

이 노스슬로프油田은 美國을 石油輸入國으로부터 輸出國으로 轉換시킬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現在 美國은 世界產油量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消費量은 世界的 34%로서 結局 相當量을 輸入하고 있다. 노스 슬로프는 오크라호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各油田의 產油量이 將次 減少한다 하더라도 充分히 이를 補充할 뿐더러 現在の 輸入分까지도 커비하고 輸出할 餘裕도 생길 것이라고 展望된다.

그러나 노스 슬로프 開發에는 두가지의 難關이 있다. 現地로의 機器輸送을 如何히 確保하느냐 또 原油를 어떻게 市場으로 搬出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1號井을 파는데 必要的 設備의 空輸에는 4百萬弗이 든다. 그래도 웨어 반크스空港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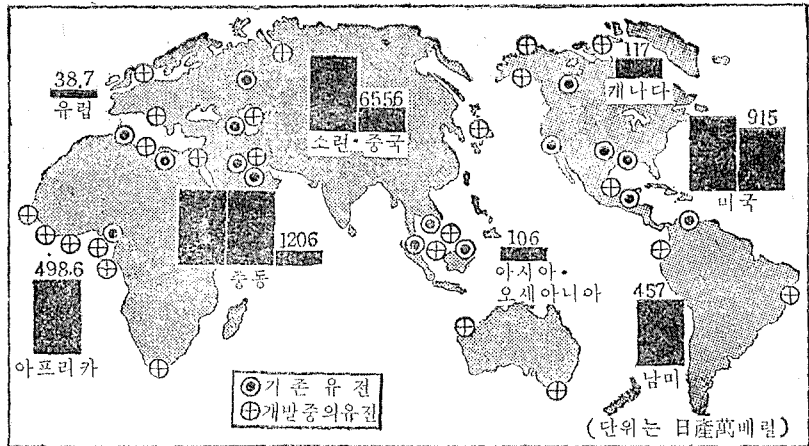
노스슬로프의 設備輸送量은 今年 1月~5月中에 伯林空輸(1948年~49年)의 全重量을 上廻하는 規模도 되었다. 이에 比해 海上輸送은 若干 싸게 든다고 해도 時間이 걸리며 航行可能期間은 年 1,2週間に 걸친 解氷期에 限하게 된다. 陸上輸送은 效率이 나쁘고 結局 空輸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다.

原油의 輸送手般은 더욱 切實한 問題이다. 3千9百萬弗의 改造費를 들인 함불 오일의 大型碎氷탱커「SS 맨하탄」은 東海岸—노스슬로프의 北極圈航路開拓에 거이 成功했다고 해도 當初보다 南쪽 偏重으로 코스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 파이프 라인 構想도 있다. 에트렌틱·릿지필드, 함불, BP(부릿티슈·페트롤리엄)은 共同으로 알라스카 橫斷파이프라인에 依해 原油를 알라스카 南岸의 不凍港 말디스까지 끌고, 여기서 탱커로 輸送하는 構想을 세우고 있다. 파이프의 第1陣은 이미 알래스카로 向해갔다고 하는데, 美內務省은 라인敷設에 부레이크를 걸고 있는 外에, 議會 保守派에서도 「파이프라인의 破損으로 第2의 캘리포니아 산타바아바라事件(油田의 原油噴出로 海水가 汚染된 事件)이 續出하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 없다」고 批判이 強하여 實現까지는 相當한 難航이 豫想된다.

한편, 南美의 에꾸어돌에서도 巨大한 油田開發이 始作되고 있다. 에꾸어돌의 北東部, 오리엔테州的 장글地帶에서는 텍사코, 갈프兩社가 共同으로 7油田을 發見, 그 推定埋藏量은 15億바렐을 넘는다고 한다. 其中 슈슈핀지 1號井은 現在 試掘斷階라고는 하나 日産 5千바렐을 誇示하고 있어 單獨으로 南美最大의 規模다. 그리고 이 하나만으로도 從來의 에꾸어돌의 全産油量의 2배에 匹敵한다. 텍사코·갈프 그룹은 今後 3年間に 걸쳐 오리엔테州에 2億弗의 資金을 投入하기로 決었다.

### 시베리아의 大寶庫

蘇聯政府當局에 依하면 最近 蘇聯에서도 西部 시베리아의 쥬메니를 中心으로 30以上의 油田이 發見되고 있다. 쥬메니地方은 이제까지 全然 未



開拓地였는데 이제는 原油貯藏量 數百億바렐이나 되는 大寶庫가 되고 있어, 이미 年間 1億4千6百 萬바렐을 生産中이라 한다. 現在 蘇聯第一의 油田 地帶은 다다르地方(年産 8億3百萬바렐), 다음으로 바지길地方(年産 3億6千5百萬바렐), 불거地方(年産 2億9千2百萬바렐)의 順으로, 예전에 有名 했던 바꾸우地方의 아제드바이잔油田은 4위에 머르고 있다. 이러한 계속된 新油田開發로 蘇聯의 年間原油生産高는 64年의 18億바렐로부터 24億바렐로 飛躍적으로 伸長했다고 推定하고 있다. 國家別로 보면 美國에 다음가는 産油國이라 하겠다.

### 日本에서는 海底油田

日本에서도 官民을 不問하고 海底油田開發에 積極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佐藤首相은 東支那海地域에서 1億1千萬 及至 3億6千5百萬바렐의 最高級原油를 期待할 수 있다고 言명한바 있고, 이미 政府에서 이 地域開發에 相當한 豫算을 割當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다스마니아 間의 바스海峽, 뉴질랜드의 쿡크海峽에서는 3年前 앞바다의 油田開發에 成功하였는데 지금은 數百萬弗을 投入하는 大規模事業으로 發展하고 있다. 바스海峽의 마알린(旗魚의 一種), 할리버(넙치), 킹핍슈(北美·濠州産의 食用 물고기인 王魚)이라 불리는 油井은 1970年末까지 年産 1億바렐에 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昨年 內陸産油高의 7배의 規模이다. 한편 쿡크海峽에서는 BP, 셸, 도트·오일·서비스의 3社그룹이 이번에 約 53기로 앞바다에서 油田開發에 成功하였다. 將來 뉴질랜드의 必要量을 全部 充當할 程度의 規模라고 한다. (뉴스위크誌)